

Daughters of Heaven과 청소년극*

조 숙 희
중앙대학교

I

동서를 막론하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들의 일탈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시킴과 동시에, 사회 인류학적인 견지에서 건강한 시민을 배출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청소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 드라마 작품 중의 하나가 미셸란 포스터(Michellanne Forster)의 『천국의 딸들』(*Daughters of Heaven*)이다. 포스터는 미국의 극작가로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뉴질랜드 국영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교육연극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전문가이다. 1991년에 발표한 『천국의 딸들』은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공연되었고 나중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Heavenly Creatures*)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다. 방송극에서 아동극과 청소년극을 오랫동안 제작하고 방영한 경력을 바탕으로 쓰인 이 극은 뉴질랜드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G00069).

교재로 채택되어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뉴질랜드에서 사춘기 소녀가 잔인하게 엄마를 살해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여, 문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청소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청소년 심리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여, 청소년극의 교육적 기능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다.

교육연극은 연극을 교육에 활용하여 도전받고 있는 기존의 교육 형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어져왔다. 쌍방향적이고, 상호 소통하며, 열려있는 교실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다양한 요구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 연극이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상호 소통을 통한 열린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교육연극은 열린 교육, 역할 수행학습과 관련된다. 학습의 주체가 학습자라는 점, 교사는 학습의 보조자라는 점, 형식보다는 내용,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고 학습자 개개인의 활동과 융통성 등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열린 교육은 교육연극이 추구하는 바와 같다고 하겠다. 또한 열린 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적인 부분이나 목표도 교육연극의 그것들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연극의 목표가 창의성과 미학적 인식의 개발, 비판적 사고 능력, 사회적 성장과 협동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 도덕적 영역 가치의 개발, 자아에 대한 이해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만큼 교육연극 자체만으로 열린교육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심상교 268)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의 하나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육연극이 실제로 교육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 미국의 앨리스 허트(Alice Minnie Hert)가 뉴욕의 가난한 이민자 자녀들에게 영어와 책읽기를 가르치기 위하여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태풍』(*The Tempest*)을 아동극으로 제작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시도가 성공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아동극(Children's Theatre)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고, 그 성과 중의 하나로, 1930년대에 미국 청소년 연맹(the Association of Junior League of America)라는 사회봉사 단체는 연극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1900년대 초에 콜드웰 쿡(Caldwell Cook)이 아동극을 이용하여 화술교육을 하여, 교육연극이 언어교육에 훌륭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는 극예술과 화술훈련 학교(Dramatic Art and Speech Training)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조병진 33 참조).

그 이후, 교육 연극은 영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DIE(Drama In Education) 와 TIE (Theatre In Education)의 개념으로 나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1960년대 후반에는 드라마가 영국의 많은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학년 수준에서 공통 활동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기까지에는 교육연극의 선두에서 활동한 피터 슬레이드(Peter Slade 1910-)와 브라이언 웨이(Brian Way 1923-2006)의 공이 컸다. 슬레이드는 놀이가 교육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드라마의 유일한 이성적 출발점이 아동의 정신적 상태와 동일한 맥락에 있어야 한다고 하며, 상상적 놀이(imaginative play)가 하나의 예술형식이고 아동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있어 중심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웨이는 드라마 수업의 주된 목적이 아동의 개별적인 내적성장이며, 아동은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나서 파트너에게 점차적으로 소그룹으로 옮겨가고 마침내 전체 학급 모두가 참여하는 상황으로 작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의 저서인 『드라마를 통한 발달』(Development Through Drama 1967)은 수많은 즉흥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다루는 실용적인 응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DIE실무가들에게 성경과 같은 것이었다(김정아 19-22 참조).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연극은 학습 방법과 학습방법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초등 교육기관에서 연극의 요소인 놀이와 즉흥극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어왔다. 서연호와 이상우에 따르면, 1992년 10월에 창단된 서울교육극단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연극을 표방한 최초의

극단이며 199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선 교육 현장을 통하여 교육연극을 전파하기 시작했다(『우리 연극 100년』 2000). 그리고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을 위한 여러 차례의 워크숍, 연극공연,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서 교육연극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박은희는 “교육 연극이 열린 교육, 통합 교육의 교수법 활용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듯이(31), 교육 연극은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를 순수 예술의 영역을 뛰어넘어 교육이라는 실용적인 분야로 확장하고 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 연극의 교육적 효과와 파장은 단순한 학습 효과 증진 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역량의 계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교육연극은 주로 아이들의 정서함양, 상상력 발달, 사회 적응, 표현력 확대 등과 관련되어있다. 또 교육 연극은 연극 교육을 통한 예술이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매개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학교 수업에 교육연극적 방법을 적극활용, 반영하여 교육연극이 여러 교과목 교육이나 인성발달교육, 사회화 교육 등에 적절히 활용되도록 해야한다. 이처럼 교육연극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을 교육적 측면만이 아닌 미래의 세계에서 필요한 문화마인드를 교육하는 문화교육의 장으로서도 활용되도록 해야하며 단절된 사회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적 예술, 즉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 (심상교 66)

이처럼 교육 연극은 어린이들의 교과 학습 증진뿐 아니라, 인성 교육, 도덕 교육, 혹은 문화교육의 장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천국의 딸들』이 교육 연극이 가지는 다양한 효과 중에서도 특히 비행 청소년들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극의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1. 청소년의 개념

이 극은 1953년 뉴질랜드의 남섬의 수도인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각 15세와 16세인 두 소녀, 폴린(Pauline)과 줄리엣(Juliet)이 서로에게 지나친 애정과 집착을 보이면서 그들만의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양 부모들은 그 들의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고, 특히 가난한 집의 딸인 폴린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공모하여 한적한 공원에서 폴린의 어머니를 벽돌로 내리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된다. 이 극은 줄리엣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 브리짓(Brigit)의 눈과 입을 통해서 소녀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와 마침내 끔찍한 살인을 하고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들을 분석하여보면,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들과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천국의 딸들』에서 묘사되고 있는 문제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학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징과 문제행동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논하자면, 일반적으로 ‘소년’이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12-1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청년’이란 14-23세 정도까지의 연령층을 말하나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란 학제상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연령층만 말하므로 13-19세까지가 될 것이다(이상현 5). 청소년기가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이었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청소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젊은이는 정열적이고 즉흥적이며 성적 충동에 휘말리기 쉽다. 그리고 자제력도 약하며 그들의 기분은 쉽게 변화하고 욕망 또한 잘 바뀐다. 열성적이면서도 매사에 부진하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

지 못하는 까닭은 과격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쉽게 좌절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무엇이든 모두 해 보려고 하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현 3에서 재인용)

불안한 과도기라는 특징으로 요약되는 청소년기는, 심신양면에 걸쳐 급격히 발달하고 변화하여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며,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징을 모두 지니게 되는 시기를 칭한다. 따라서, 복잡 다양한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를 과도기, 질풍노도기, 지불유예기, 제2의 탄생기, 제2의 반항기, 자아발견기,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 중간인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임영식의, 14).

청소년들이 아동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행해야하는 과업들은 다양하다. 먼저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기의 성역할을 수용한다. 그리고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하며, 경제적 독립의 첫단계인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적기능과 개념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하며, 다가올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체계를 형성해야 한다(Havighurst 『청소년심리학』 36에서 재인용).

이처럼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시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들을 심각하게 제기하게 되고, 고뇌, 방황, 실패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거치고 정체감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청소년기의 주요한 과제(『청소년심리학』 79)이다. 자아 정체감(ego-identity)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발전과 실제 적용에 가장 현저한 공헌을 한 에릭슨(E. H. Erikson)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반드시 획득해야만 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임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중심적인 과업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정체감은 인간이 반드시 획득해야만 할 과제이며 생애교육의 내용으로서 이러한 과제 또는 교육내용을 습득하는데 결정적인 시

기가 청소년기이다(임영식의 313에서 재인용).

자아 정체감 발달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반드시 형성해야하는 것은 도덕성에 기초한 올바른 가치관이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사회인으로서 지켜야할 갖가지 유형, 무형의 규칙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행동자세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부모와 같은 주변 가까이 존재하는 어른들이 교육적으로 롤 모델이 되며, 사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일탈행위를 하였을 때에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성숙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여러 발달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다 순조롭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지는 못한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문제 청소년 혹은 정도가 심해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청소년기 정서의 특이성에서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서는 격렬하고 쉽게 동요하는 속성이 있다. 타인의 비판, 훈계, 간섭 등에 민감하여 크게 불쾌해하며 화를 내고 그들을 부정하고 반항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민감하여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평가하면서 스스로, 열등감, 무력감, 자기회의, 자신감 상실, 허탈감 등에 휩싸인다. 그러므로 격렬한 내적 갈등 속에서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기 영웅시에서 비롯되는 부푼 감정과, 억눌리고 자신감을 잃은 어두운 열등감 등과 같은 이질적인 성향들이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므로 심한 정서적 기복을 보여준다. 이런 격심한 정서를 스스로의 의지와 사고에 의해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충동적이고 탈선적인 행동이 나타난다(임영식 외, 175-179 참조). 이 작품은 이러한 청소년기의 내적, 외적인 갈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천국의 딸들』의 환경에서 드러나는 청소년 문제들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기의 특징들이 포스터의 『천국의 딸들』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인 폴린은 엄마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과업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폴린의 엄마는 폴린으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두고 비서학원을 다닌 후에 취직을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녀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미래 계획이라고 설득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마의 제안이 폴린에게 가장 알맞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처하기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여 친구 줄리엣과 함께 그들만의 환상의 세계에 머물고 싶어하는 폴린에게는 엄마가 마치 자기의 미래를 망치려고 간섭하는 마녀와 같은 존재로 비추어진다. 폴린과 상황은 다르지만, 줄리엣 역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륜관계에 몰두하는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극도의 반항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녀 역시 엄마를 불필요하고 성가신 존재로만 여긴다. 불만스러운 가족관계에서 생성되는 자신들의 욕구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두 소녀는 전형적인 문제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주인공인 폴린은 가출을 일상화한다. 청소년심리 학자들이 내리는 가출에 대한 정의는 대개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간 청소년으로 적어도 하루 밤 이상 부모의 인식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행동을 한 청소년,” 혹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등으로 집약된다. 즉, 부모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과 가출시간이 대략 24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포함되면 가출로 인정되는 것이다 (『청소년문제론』 73). 폴린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며칠씩이나 줄리엣의 집에 머문다. 친구 집에 하룻밤 머물면서 놀고 자는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명백한 가출행위로 보여지며, 줄리엣의 부모와 폴린 부모가 그 문제성을 깨닫고 줄리엣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자 폴린은 단식 투쟁으로 맞선다.

이처럼 부모의 간섭과 영향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반면에, 폴린과 줄리엣은 대

중 아이돌 스타를 신격화한다. 물론 대중 아이돌 스타를 숭배하고 그들과 동일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청소년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대부분의 현대 청소년들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소녀의 아이돌 스타 숭배는 일반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강박증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불안과 환멸만을 주는 현실로부터 일시적인 도피를 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환상의 세계인 일종의 종교를 창조하고, 그 종교를 신봉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제식을 거행하는 등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해낸 천국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the Fourth World, 43)라고 부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천국을 지배하는 성인이자 우상은 마리오 란자(Mario Lanza)와 제임스 메이슨(James Mason)과 같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다. 그들이 매일 줄리엣의 집에서 그들의 신격화된 우상에게 바치는 비밀스런 제식에는 마리오 란자와 제임스 메이슨과의 섹스를 하는 에로틱한 환상도 포함되어있다. 그들에게는 마리오 란자와 제임스 메이슨이 “성인들”(our saints 35)이며 자신들의 “진정한 가족”이다(our one true family 35)이다. 그들의 간절한 꿈은 뉴욕에 가서 마음껏 즐기며 생활하고, 틈틈이 소설을 쓰고 할리우드의 영화사로 하여금 영화로 만들어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지나친 몰입과 더불어, 그들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폴린이 옆 집에 사는 자기 또래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도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어른의 흉내를 내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린은 사랑의 감정이 없이 이루어진 섹스에서 혐오감과 통증만 기억하고,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인 줄리엣을 향한 애정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진한 키스를 하는 등의 과도한 애정 표현을 통하여, 동성애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으로 건너갈 항공료를 구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편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원조교제나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행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사랑과 무관한 섹스 행위들,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등에 관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통하여 그들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두 소녀가 자기들이 것처럼 혐오하는 어른들의 사회의 그릇된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물질적이고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의해서 길들여 있다는 것은 그 둘의 위치 설정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줄리엣과 폴린은 서로를 끄찍이 좋아하며 거의 동성애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도 상하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줄리엣은 친구인 폴린이 가난한 집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열등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언제나 우위의 위치하고 폴린 역시 그런 설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그녀는 원조교제와 같은 매춘을 할 경우 자기가 폴린보다 당연히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거 한 번 해주고 내가 십 파운드쯤 받으면, 넌 아마 팔 파운드쯤 받겠지?”(Ten pounds a pop for me, maybe eight for you. 37). 또한, 그들이 행하는 제식이나 연극에서는 항상 줄리엣이 왕 역할을 하고 폴린은 왕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 줄리엣의 시중을 든다. 결국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비웃고 증오하면서 그들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온갖 일탈을 일삼지만, 동시에 어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소녀의 우정은 바람직하거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 청소년기의 우정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졌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존재가 그들의 부모보다도 또래의 친구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10대의 아이들은 친한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친구들과로부터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행복과 정신적인 안정감이 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충성심이나 신뢰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또 친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많으며, 친구에게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고 의지한다(『청소년심리학』 2004, 387). 이 작품에서 소녀들의 관계는 청소년기의 우정이 얼마나 청소년들에

게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모를 비롯한 주위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대화와 행동들은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서로가 “얼마나 못된 비행청소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우정의 토대인 것처럼 보인다(How many commandments have we broken now? 38). 따라서 이 두 소녀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지와 애정의 표현이 극단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서로를 억압하고 타락시키는 부정적인 청소년 우정관계의 단면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극 중간 중간에 폴린의 부모가 나누는 대화에서, 폴린이 줄리엣과 친해지기 전에는 극히 정상적이고 상냥한 아이였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폴린으로서는 또래 친구와의 잘못된 우정이 그녀의 가치관과 삶을 크게 바꾸어놓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릇된 가치관에 길들여진 두 소녀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은 채로 거짓말, 협박, 심지어는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한다. 오히려 기독교의 십계명을 깨뜨리는 것을 자기들만의 중요한 행동강령으로 만들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이탈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매일 서로 만날 때마다 그 날은 어떤 나쁜 짓을 하여 무슨 계명을 깨뜨렸나를 서로 보고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실들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있는 하녀 브리짓을 쫓아내기 위해 귀금속을 훔친다는 누명을 씌우면서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스틸과 재미를 느낀다. 한 술 더 떠서, 줄리엣은 엄마가 남자친구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현장을 급습하여,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 둘의 관계를 아빠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더 나아가, 폴린의 엄마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두 소녀는 마치 흥미로운 로맨스 소설을 쓰는 정도로 생각하고 즐긴다. 마침내, 그들은 허황한 꿈과 환상의 세계에 머물기 위한 방책으로 자기 엄마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혹은 모르는 척 하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냉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두 소녀가 범죄 행위 후에 하는 행동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이 이른바 심각한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학에서 품행장애는

극심한 정도의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일컬으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한다, 자주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곤봉, 벽돌, 깨진 병, 칼, 총),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도둑질(노상강도, 낄치기, 강탈, 무장강도 등)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등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품행장애의 초기 시작이 대부분 가정에서, 그리고 특히 어머니와 자녀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버지에 비해 자녀들과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이다(『청소년심리학』 2004, 347-453 참조).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지적하고, 수정, 통제하는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지나친 잔소리나 간섭으로 지각되어 어머니의 권위나 말에 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잔인한 폭력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천국의 딸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폴린과 줄리엣은 공모하여 폴린의 어머니를 스타킹에 싼 벽돌로 서로 번갈아가며 무려 45번이나 내려쳐서 처참하게 죽이게 되기 때문이다.

3. 『천국의 딸들』의 부정적인 환경 요소들

『천국의 딸들』의 두 자녀가 문제 청소년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평범한 사춘기 소녀에서 문제 청소년이 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 요소들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빈곤 소외 계층이라는 사회 조건이 그 계층에 속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주체하기 어려운 열등의식을 겪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범죄 사회학의 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빈곤층에는 중산층과는 다른 문화(하위문화)가 존재하며 그 중 특수한 부분이 하층 청소년들

로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기 쉽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의 대표적 주창자인 코헨(A. Cohen)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에 따르면, 특히 빈곤층 소년들이 지위 욕구불만(status frustration)에 기인하여 중산층의 지배문화에 대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청소년 문제론』 52). 공교롭게도 친구 사이인 두 소녀의 집안은 극단적으로 선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딸인 폴린이 갖는 수치심과 증오는 견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어진다. 줄리엣의 부모는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교육받았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해 있다. 반면에, 폴린의 부모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생선가게를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돈이 없어서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로 20년을 살고 있다. 본문에서 줄리엣의 부모는 자기들이 지닌 고유 이름으로 불리지만, 폴린의 부모는 단지 리퍼씨 부부(Mr. and Mrs. Rieper)로만 불리며,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줄리엣이 폴린의 속치마가 낡았다고 할 때에, 폴린은 너무 창피한 나머지 속치마를 갈가리 찢어버리며 언니의 헌옷만 물려 입히는 엄마를 저주한다: “엄마를 향한 분노가 내 안에서 끓고 있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엄마야” (Anger against Mother boils up inside me. It is she who is one of the main obstacles in my path 27): “어제서 엄마는 죽지 않는거야?”(Why could not Mother die? 40). 게다가 엄마가 폴린을 학교에서 자퇴하게 하고 취직준비를 위해서 비서학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자 그녀의 반발은 극에 달한다. 폴린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 줄리엣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동일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 그 집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 집에서도 나를 원해!”(I’m one of the family! They want me! 42).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폴린은 자기 부모의 존재를 혐오하고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차상위 소외 계층과 같은 사회적인 상황에 이어서, 청소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문제 있는 부모와 가정이다. 폴린은 자기 부모가 가난한데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을 느끼지만, 부잣집 딸인 줄리엣도

폴린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불만에 둘러싸여 있다. 줄리엣 스스로 풀린 못지 않게 불행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결코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줄리엣의 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그런 남편에게 좌절하고 반항하는 어머니는 남편의 친구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줄리엣은 무관심하게 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줄리엣의 어머니인 힐다(Hilda)는 줄리엣이 하녀인 브리짓(Brigit)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비난할 때에,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딸을 도덕적으로 훈계하지 않고, 브리짓을 해고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인을 브리짓의 숙소인 별채에 들어와 살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녀로서는 연인을 만나러 호텔에 드나들다 남의 눈에 띄어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예 자기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불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줄리엣과 연관된 증거들을 인멸하여 자기 딸을 지키고, 모든 죄를 폴린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힐다 못지않게, 줄리엣의 아버지인 헨리도 이른바 문제가 있는 아버지이다. 자기 아내나 딸에게 무관심하고 차갑게 대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무기력하게 허용하고 지켜보며, 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 사건으로 재판 받는 동안 혼자서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비인간적인 인물이다. 그 뿐 아니라, 다른 남자를 택한 힐다에 대한 증오 때문에 줄리엣의 재판 비용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지원조차 냉정하게 끊어버린다. 그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몰인정한 행동들을 직시하면서 줄리엣은 부모를 역할 모델로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냉소와 비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문제 청소년의 욕구불만의 대부분이 그들의 생활 근거지인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원만치 못한 관계는 그들의 욕구불만의 주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자면, “가정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무관심이나 이혼, 별거, 재혼 등의 결손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모의 이기적 또는 부정적 관심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애정에 대한 욕구와 기본 신뢰 및 안정에 대한 욕구가 침해당함으로써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반사회

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또는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은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임영식 외, 180). 따라서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한 줄리엣이 문제 청소년으로 변화하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부모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줄리엣의 부모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인 폴린의 부모는 알뜰하게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폴린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린 폴린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줄리엣과 비교해서 너무나 가난한 자기 집을 항상 부끄러워하고 심한 열등의식 때문에 괴로워할 뿐이다. 그 열등의식이 과포화상태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불행의 근원이라 믿어온 엄마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폴린의 엄마가 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희생양이라면, 민감하고 반항적인 청소년기를 부드럽게 넘기지 못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열등의식으로 인해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폴린 역시 자본주의, 배금주의 사회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연결되어서 언급해야 할 것은, 전체적으로 위선적인 기성사회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비단 줄리엣의 부모뿐 아니라, 두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 역시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선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들에게 바람직한 역할 모델(role model)을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맡은 형사는 줄리엣의 부모의 특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줄리엣을 그 범죄 현장에서 제외시키려 하며, 그 범죄는 폴린의 단독범행이라고 몰고 가려고 한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정도 마찬가지이다. 재판장은 줄리엣의 아버지가 재판정에 서서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원래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영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는 반면에, 자기 딸의 범죄에 의해서 갑자기 아내를 잃는 가장 끔찍한 변을 당한 리퍼씨에게는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은 채로 증언대에 세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문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주인공들이 문제 청소년으로 변화하도록 조장하는 사회적인 원인들도

심도 있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주인공들과 비슷한 또래들에 의해서 공연되고, 역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관객들이 관람할 때에, 공연자들이나 관객들이나 그들 자신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이 극의 교육적인 효과, 더 나아가 연극치료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II

현대 사회의 중요 이슈 중의 하나인 청소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적지 않다. 가령, 『돌 던지기』(*The Stones*)라는 작품은 『천국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일어났었던 일을 소재로 한 청소년극이다. 톰 라이코스(Tom Lycos)와 스테포 난쑤(Steffo Nantsou)가 호주 멜버른의 한 도로 위에서 청소년들이 던진 돌에 트럭 운전자가 숨진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 작품을 공동 집필한 이 작품은, 1996년 호주 질(Zeal)극단이 연극으로 만들어 호주는 물론 유럽 각지를 순회하면서 1천 회 이상을 성공적으로 공연한 바 있고, 최근에는 『소년이 그랬다』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어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 수 타운젠드(Sue Townsend)의 『13살 9개월 된 아드리안 몰의 비밀일기』(*The Secret Diary of Adrian Mole Aged 13¼: The Play*)를 들 수 있다. 주인공인 몰은 사춘기의 방향을 겪는 소년의 시점으로 주위에 가득 찬 위선적인 어른들을 관찰하는데, 부모가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불화, 별거, 그리고 마침내 재결합하게 되는 격동 속에서 자신이 철저히 잊혀진 존재임을 깨닫고 문제 청소년의 경계에까지 다다른다.

이처럼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극들은 대부분 주인공들이 가정, 학교, 사회, 종교 등의 사회 질서와 체제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방향과 좌절을 거듭하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거의 언제나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천국의 딸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두 여주인공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혹은 느끼

지 않는 척 하며, 다시금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채로 끝난다.

이러한 결말은 거의 언제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해와 축제의 장으로 끝나는 종래의 우리나라 청소년극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명은은 우리나라 청소년 극의 희망적인 결말 구도가 공연 외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실제 공연 현장에서, 갈등이 해결되어 등장인물들이 화합을 이루는 마지막 장면에서 청소년 관객들이 환호와 박수로 호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이며, 공연을 통해 형성된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교육현식의 모습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는 것이다(61). 그러나 『천국의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린 결말은 종래의 우리나라 청소년극들에서 나타나는 작위적인 결말보다도 더 교육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무런 메시지를 제시하지 않고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것은 연극치료의 관점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남겨준다. 문제 청소년이 될 소지가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청소년들을 다루는 청소년 연극을 관람할 때에, 무대 위의 인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자신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흔들리는 자아 정체성을 건설적으로 확립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연극치료(드라마테라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청소년의 자아개발을 위한 치유적 연극의 실험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3개월간 실시한 실험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준다.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예전의 자기 모습에서 특히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한 행동을 깨닫고 연극치료를 통해 얻은 자아개념 변화를 학생들 스스로 체험하고 자기행동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이은선 63-64 참조). 물론 이 연구에서 시도한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연극치료이지만, 연극치료의 범위를 교육 및 치료의 효과를 갖는 교육 연극으로 확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문

제 청소년이라고 규정된 소수의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제한된 연극치료가 아니라, 문제 청소년의 요인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일반 청소년들에게 넓은 의미의 연극치료를 시도하는 것도 유익한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천국의 딸들』은, 주인공들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 청소년적인 특질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무대 위의 재현을 통해서, 같은 또래의 청소년 관객들에게 교육연극으로서 혹은 더 나아가서 연극 치료적인 효과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미셸란 포스터, 『천국의 딸들』, 비행청소년, 청소년극, 교육연극

인용문헌

- 김정아, 『도로서 헤스콧(Dorothy Heathcote)의 교육연극 방법론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민병욱, 심상교, 편,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2000.
- 박은희. 「교육연극이란 무엇인가」,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2000, 31-48.
- 손효주, 「80년대의 아동-청소년 연극, 그리고 90년대..」, 『연극과 교육』, 1989년 4집, 42-48.
- 서연호, 이상우, 공저, 『우리 연극 100년』, 현암사, 2000.
- 서연호, 『한국연극사. 현대편』, 연극과 인간, 2005.
- 심상교, 『교육연극-연극교육』, 연극과 인간, 2004.
- 유명은, 『교육현실 담론을 형상화한 청소년 연극의 창작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상현,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7.
- 이은선, 『연극치료(dramatherapy)를 통한 청소년의 자아개념(self concept) 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임영식, 한상철, 공저(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정혜미,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조병진, 「연극의 교육적 활용: 그 가능성과 방향」, 『한국연극』, 1998년 11월호, 21-40.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7,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1, 서원.
- 한 귀은(2000), 「유스 씨어터를 통한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257-301.
- 한상철,, 조아미, 방성희, 공저(2004), 『청소년심리학』, 양서원.
- Forster, Michelanne. *Daughters of Heaven*. Wellington: Victoria UP, 1992.
- Hellman, Lillian. *Children's Hour. Six Plays by Lillian Hellman*. New York: Vintage, 1979.
- Jenkyns, Marina. *The Play's the Thing: Exploring text in drama and therapy*. London: Routledge, 1996.
- Jennings, Sue. *The Handbook of dramatherapy*. London: Routledge, 1994.
- Jennings, Sue. *Dramatherapy: Theory and Practice 3*. London: Routledge, 1997.
- Landy, Robert. *Drama Therapy: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이효원 역.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극치료』. 서울: 울력, 2002.
- Miller, Arthur. *The Crucible*. New York: Penguin, 1976.
- Townsend, Sue. *The Secret Diary of Adrian Mole Aged 13¾: The Play*. London: Methuen, 1996.
- Way, Brian. *Development through Drama*. New York: Longman, 1967.

A Study of Youth Theatre in *Daughter's of Heaven*

Abstract

Cho, Sookhe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oday is the rapid increase of juvenile delinquents. Consequently,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the education of morality and of humanistic perspectives for adolescent youngsters gets urgent than ever. Michelanne Forster' *Daughters of Heaven* seems to provide a timely chance to inspect the current issue.

The play is based on the real story that shocked the quiet city of Christchurch in New Zealand almost fifty years ago when an adolescent girl killed her mother brutally by hitting her on the head as many as forty five times with a brick with the help of her intimate friend. In this play, one can trace a series of causes which finally led the young girl to commit such a formidable crime. To name but a few, one of the two protagonists, Pauline, suffers for a serious inferiority complex because she belongs to the neglected and underprivileged class. On the other hand, Juliet, in spite of her comparative affluent situation, despises her parents: her father shows a cold shoulder to his family, absorbed in his dry world of academism and her mother tries to revenge on her husband by developing an extramarital affair with a closest friend of her husband's. As a result, the two girls come to stay in their own imaginary world where popular idol stars dominate. Furthermore, they even connived to kill Pauline's mother who seems to impede them from enjoying their world of fantasy. Unfortunately, they carry out their appalling scheme and remain on the stage without any feeling of guilt when the curtain falls.

The play about juvenile delinquency performed by the youngsters provides a therapeutic chance to the youngsters as audiences to look around their own

situations and to get the moral and emotional balance which is liable to be neglected especially at the age of turmoil.

Key Words Michelanne Forster, *Daughters of Heaven*, juvenile delinquency, theatre in education, drama therapy

조숙희 (단독연구)

중앙대학교

논문투고일: 10월 31일

논문심사일: 11월 8일 ~ 22일

게재확정일: 12월 6일